

큰 소리로 책 읽어 본 게 언제였나요

낭독모임 '책만이 소리'

'읽고 오지 않기' 원칙... 함께 읽고 토론
"책 내용이 마음으로 스며드는 것 같죠"

매주 월요일 양림동 어빈슨기념관 모임

주위에 가장 많은 모임 중 하나가 독서클럽이 아닐까 싶다. 함께 책을 읽고, 한 장소에 모여 토론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인문학, 동화책, 소설 등 분야별 독서클럽도 있고, 연령층에 따라 모임이 세분화되기도 한다.

낭독모임 '책만이 소리'는 말 그대로 책을 함께 '읽는' 모임이다. 눈으로만 읽는 데서 벗어나, 입으로 읽고 귀로 들으면서 더 많은 감각을 활용한다.

모임에 오기 전 책을 읽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다. 현장에서 함께 돌아가며 책을 읽은 뒤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지난해 11월 첫발을 댄 '책만이 소리' 회원들을 만났다. 이날 회원들이 함께 읽은 책은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한 시간 동안 39~62페이지까지 7명의 회원이 돌아가며 낭독한 후 토론이 벌어졌다. 교육과 지능의 관계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모임을 처음 제안한 이는 강진아(28)씨다. 우연히 인문학 강의를 듣게 된 강씨는 강연장에서 '낭독은 입문학이다'(김보경 저·현자의 마을 출간)이라는 책을 접했다. 책을 직접 소

리 내 읽는 '낭독'의 의미와 효과를 이야기하는 책이었다.

"강의를 들을 당시 A4 용지에 강의 내용을 적어서 다같이 읽었어요. 큰 소리로 무언가를 읽어보는 경험이 신선했습니다. 그 책을 읽고 함께 낭독 모임을 가져 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광주극장 홈페이지에 함께 공부할 사람을 찾는 글을 올렸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 놀랐어요."

'낭독'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무작정 책의 저자에게 메일을 보낸 강씨는 저자 김보경씨로부터 광주의 철학대학교인 지혜학교 철학연구소 장민혁(33) 전임연구원을 소개받았다. 장씨가 근무하는 지혜학교가 운영하는 '현자의 마을'이 '낭독은 입문학'을 펴낸 출판사였고, 장씨 역시 학교 아이들과 수업 시간에 책을 '낭독'하고 있었다.

"함께 낭독하며 공부하는 건 지혜학교 수업 내용이기도 해요.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주의력 산만한 중 1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을 줄 알게 되고, 또 자신의 의견을 말하게 되는 걸 확인했어요. 아이들에게 시키기만 하다 직접 저도 즐기고 싶어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모임의 멤버는 다양하다. 5·18문학상 동화 부문 수상자인 작가 장광균(41)씨, 스토리 작가인 최현희(31)씨, 지혜학교 교사 이보람(31)씨, 수학강사 명지훈(43)씨 등이 함께하고 있다.

모임 이름은 한빛고 3학년인 박세인 양이 지었다. '말이'가 우리말로 '처음'이라는 뜻이고, 처음 모임을 '맛이나다'는 의미를 담았다. 모임을 꾸린 후 가장 먼저 함께 읽은 책은



낭독 모임 '책만이 소리' 회원들은 매주 월요일 만남을 갖는다. 강민아·장광균·명지훈·박세인·최현희·이보람·장민혁씨(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

'낭독은 입문학이다'였다. 이후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와 기드 모파상의 '비계영어리'를 읽었다. 함께 읽은 책은 각자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을 추천한 후 논의 과정을 거쳐 한권을 정한다.

얼마 전부터 회원들이 돌아가며 진행하는 시 낭송은 또 다른 즐거움이다. 이성복의 '관

심을 끌기 위해서였다'. 계간지 '문학동네'에 실렸던 이규리 시인의 '최선은 그런 것이예요'를 낭송했다.

"시낭송을 좋아해서 가끔 하곤 했어요. 책을 혼자서 가끔 소리 내 읽어보기도 하는데 함께 소리내 읽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낭독을 하면 몸이 열리는 느낌이 들어요. 눈으로 그냥 읽을 때보다 훨씬 집중하게 되구요. 책 내용을 머리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 마음으

로 스며드는 느낌을 받습니다."(이보람)

낭독모임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남구 양림동 어빈슨기념관 커피숍에서 열린다. 함께 읽을 책과 커피값(3000원 이하)을 준비하면 된다. '책만이 소리'(cafe.naver.com/firstnangdok) 인터넷 카페에 들르면 낭독 모임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문화재단 지원사업 도민 만족도 높아

전남문화예술재단 지원사업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원사업 수행단체들은 전문가 컨설팅 등 밀착형 교육 등 단계 역량강화 전문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월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지난해 추진한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재단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단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된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민 587명 중 80.4%인 472명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42.2% (248명)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보통'(16.2%), 불만족 (1.7%), 매우 불만족(0.2%) 등이 뒤를 이었다.

만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38.5%)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28.3%)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11.9%) ▲풍부한 관련정보 제공(9.5%) 등으로 조사됐다.

또 도민들은 문화예술 분야 중 가장 발전한 분야로는 미술(32.7%)을 꼽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영아티스트 서울 나들이

설박 등 갤러리GMA서 22일까지 전시회



윤중호 작 '남자+여성+그리고-별이'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서울 서구동에 있는 갤러리GMA에서 오는 22일까지 '광주 영아티스트전-Question'을 진행한다.

참여작가는 지역 신진작가인 백상옥(조각), 이조흠(영상, 뉴미디어), 이인성(회화), 설박(회화), 노여운(회화), 윤중호(조각) 등이다.

백상옥은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고수신 그곳에 담아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이조흠은 LED와 네온으

로 세모, 네모, 동그라미 등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이미지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시도한다.

이인성은 일상적 대상과 사건에 서사성을 덧입힌 표현주의적 회화를 선보이며, 설 박은 먹을 먹은 한지를 찢어 붙이는 독특한 방식으로 수묵 산수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낸다.

노여운은 과거 기억의 장소가 되어버린 골목길의 아련하고 따뜻한 풍경을 특유의 감성적 언어로 그려내고, 윤중호는 인간의 육체에 입과 발, 성기 등 신체의 특정부분을 결합해 보는 이의 무의식의 세계를 끌어내는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02-725-004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기악·성악으로 듣는 '춘향가'

국악그룹 늘숨, '춘향, 꽃피우다' 7일 전통문화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하 전통문화관)은 오는 7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국악그룹 늘숨(대표 김지혜)의 '춘향, 꽃피우다-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한다.

이날 공연은 춘향가의 각 대목에 맞는 새로운 제목을 정해 전통 판소리를 현대적인 기악과 성악으로 재구성했다.

광한루에서 그네 뛰는 춘향을 보고 이몽룡이 첫눈에 반한 감정을 표현한

기악곡 로맨틱코(Romantic), 춘향과 몽룡의 설레는 만남을 아름다운 선율로 담은 크로스 어 브리지(Cross a bridge) 등을 들려준다.

또 변학도와 춘향이 만나는 '기생전고' 대목을 악기용 솔로 연주로 표현한 미스 코리아(Misskorea), 옥에 갇혀 몽룡을 그리는 춘향의 애달픈 마음을 담은 윤혜선 보컬의 문 라이트(Moonlight) 등을 연주한다.

한편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전통문화관 토요일공연은 무료로 진행하며, 오는 14일 토요일공연은 창작국악그룹 그루의 'remind' 공연이 펼쳐진다. 문의 062-232-159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이태리가구 혼수가구 특가전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 1899-0240